

# 해바라기 공원설계<sup>1)</sup>

박찬용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 Design of Haebaragi Park

Park, Chan-Yo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Yeungnam Univ.

### ABSTRACT

The purpose of designing Haebaragi park, legally designated as children park, is to make a place for children including residents performing outdoor recreation, various social interactions, and cultural activities. Design concept for space plan have twofold: the one is a positive and creative playing space and facilities for children, escaped from a monotonous playground, and the other is a cultural and social space for neighboring communities.

The site having the area of 1,316.7 square meters, located in Nowon-Dong, Buk-Gu, Daegu Metropolitan City, is just like a vest pocket park. The adjacent area had been developed a slum area with mixed and visually conflicting land use patterns and low income groups. The children and residents living in the area do not have any public space suitable for playing and/or rest.

After analyzing such locational characteristic as accessibility, land use of the communities, and potentials for park development, and such design concept as arrangement of facilities, efficient use of site, and functional allocation of park space, We have made a plan for composition of spaces for various activities, provision of facilities based on estimation of user-demand and activities, and planting.

In the design process, we have tried to harmonize functional spaces with facilities, and to organize all the functions as a whole. To improve urbanity and aesthetic shape of park design, we have introduced a central plaza, design of a paved floor, a torrent, large trees for shade, colonnades and so on.

From this design project, we can develop the site as a children park for increasing creativities and various playing opportunities, and as a resident space for rest, cultural activities. In the future, it is required that many attempt to design and develop urban small space as a park for children and residents.

*Key Words : Haebaragi Park, Children Park, Park Design, Vest Pocket Park*

### I. 서론

대구광역시 북구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30개소(면적 67,776 m<sup>2</sup>)이다. 이들 중 약 40%의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지 10년 이상이 되어 공간과 시설의 질적 수준이 낮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나머지 어린이공원들도 재원부족과 어린이공원의 중요성을 고려함이 없이 단순한 공간구성과 재래식 놀이시설물이 주류를 이루는 형태로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다양한 놀이 행태나 취향에 부적합 실정이다.

최근 대도시 환경에서는 가용토지자원의 부족과 높은 지가로 인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원용지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지금까지 도시공원 조성의 우선순위는 전시효과가 높은 국가적, 대도시, 혹은 도차원에서의 대규모 공원이어서 일상적 이용과 활용이 가능한 근린 생활권 중심의 중·소규모 공원의 조성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다.

실제로 어린이공원을 비롯하여 포켓파크(vest pocket park), 자투리 땅, 찜지마당, 가로녹지, 대규모 빌딩의 옥외공간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일은 비교적 용이하고 현실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공원녹지의 확보방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어린이공원은 규모는 작지만 대부분 주거 밀집지에 입지하며 분산형으로 비교적 골고루 배치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 일상적 이용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원의 조성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공원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는데는 흔하지 않다. 또한 어린이공원이라는 법적 요건만이 구성되고, 주된 이용 연령층을 어린이들에게만 국한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린이들의 변화하는 놀이취향과 이용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미끄럼대, 시이소오, 그네, 철봉 등의 놀이기구의 설치를 위주로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해바라기 공원설계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저소득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공원부지를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에게 휴식, 놀이, 문화 및 복지수준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계층을 위해, 다양한 시간대에, 다기능의 공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적 도시 소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나아가 어린이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유대감을 제고시키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공원은 1996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1997년 5월에 준공되어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 II. 설계여건 분석

#### 1. 입지특성

해바라기공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 2가 267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1,316.7 m<sup>2</sup> (398.3평)이고 도시공원법 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이다(그림 1 참조). 공원의 인접지는 불량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북, 서, 남쪽으로 폭 7m 도로가 주택가와 접하고 있으며 상가, 영세공장, 노상주차장 등이 혼재하여 시각적으로 무질서하고, 대로인 팔달로로부터 약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 주변의 이면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 교통의 혼재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2 참조).

주변지역은 노후한 단독주택과 영세공장이 밀집한 곳으로 어린이 놀이터나 공공공간이 전무하고, 야간에는 휴게시설과 조명시설이 부족하여 공원으로 이용도 아주 저조한 실정이었다.

#### 2. 공간 및 환경 현황

1996년 당시 대상지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되었다. 주요 놀이시설은 조합놀이대, 그네, 시이소오, 미끄럼대, 구름다리 등이 있었고 편이시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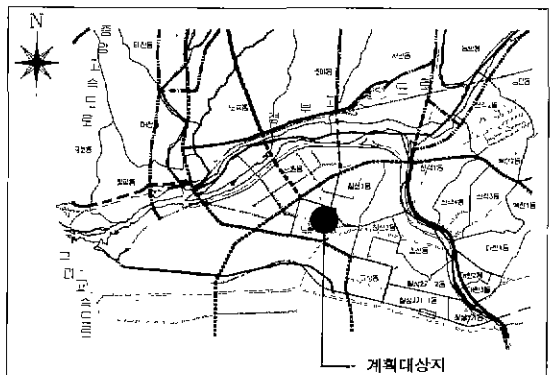


그림 1.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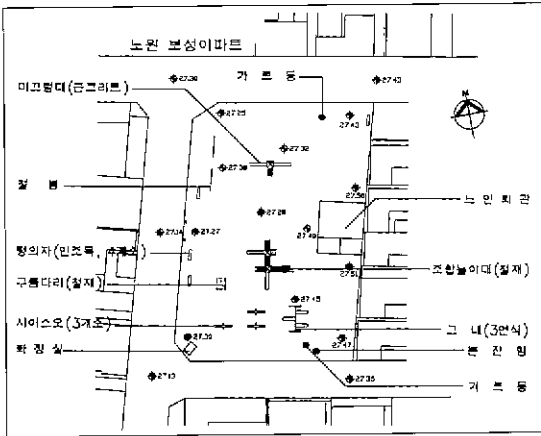


그림 2. 현황도

는 평의자 4개소와 가르동이 있었다. 대체로 공원 시설의 종류가 단순하고 상태도 매우 낙후되었으며 심지어 60년대에 설치된 콘크리트 미끄럼대도 있었다. 그 외 공원부지 내에 노인회관과 화장실 1개소가 있었으나 노인회관은 시설의 노후로 철거를 해야할 실정이었으며 화장실은 관리가 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대상지의 대부분 공간은 어린이 놀이터로 이용되고 있었고 대상지 외곽 주변지에 느티나무, 수양버들, 은행나무, 히말라야시다 등이 식재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수형이 불량한 상태였다.

전체 부지는 경사가 거의 없고 인접도로와도 표고차이가 없는 평지로 연결되어있다. 설계 시 의도적인 지형변경이 요구되며 자연스럽게 지표수를 유출시키기 위한 경사가 요구되었다. 부지 외곽 도로를 따라 상하수 맨홀 및 전주, 공동구 등의 지장물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동쪽 측면으로는 불량건물의 벽면이 대상지 경계와 면해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

### 3. 설계여건 분석

부지의 3면이 폭원 7~8m의 점속도로에 둘러싸여 다방면에서 진입이 용이하여 우선적으로 공원 진입지점을 여러 곳에 두어 접근 및 개방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부지 주변이 주거 밀집지역이고 북서편에 새로 입지 될 아파트와 인접 주거지에 5-10세의 유아와 어린이가 많고,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이 공원을 이용

할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들을 수용할 공간과 시설도 요구되었다. 이와 아울러 부지면적이 400평(45m×30m)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원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의 도입에 따른 부지의 협소함도 설계적으로 극복해야 했다.

부지 동측의 불량노후주택들이 양호하지 못한 경관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 주거지와 공원 경계부위에 적절한 시각적 차폐가 요구된다. 또 산발적인 놀이공간과 시설의 배치로 토지의 효율성과 이용성이 떨어지고 특히 전반적으로 공원 시설물이 낙후되었고 적절한 휴게휴식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여 공원으로서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 또한 대상지는 경사가 없는 평탄지이기 때문에 배수가 매우 불량하여 식재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설계 시에 이를 고려해야 했다.

## II. 기본계획

### 1. 이용자 수요

공원 이용권내의 주민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수요에 부응하는 도입공간과 시설을 주민들의 계층에 따라 세분하고자 했다.

부지 주변의 주민들은 대개의 경우 생계를 위해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어린이들은 보호자 없이 도로나 공장에서 놀고 있는 경우가 흔하며, 청소년을 위한 운동공간도 없었고 장년층이나 노인들을 위한 뚜렷한 휴식공간이 없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협소하고 열악하며 시장과 영세공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옥외공간이 매우 부족하므로 공원부지 내에서 이와 연관된 각종 옥외활동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2. 도입활동의 선정

부지의 여건을 종합해 볼 때 도입활동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위한 옥외 활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부차적으로 지역의 공동체적 의식과 문화적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로 판단했다.

우선 유아 및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으로서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유스러운 놀이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복합놀이와 놀이조형물 그리고 물과 관련한 놀이 활동으로서 계류형 도섬지, 점핑 분수(jumping fountain), 세발 자전거길 등을 도입하고자 했다.

초등학교 상급학년부터 청소년을 위한 활동으로 롤러 브레이크, 길거리 농구를 도입하고 지역주민의 운동 및 놀이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정적 휴식 및 담소

행위를 수용하기로 했다.

지역주민의 연대감 형성과 비상시 동네마당의 역할을 수행하며 운동 및 놀이활동을 수용하고자 했으며 축제 성 문화활동과 자연스럽게 들러서 얘기하는 곳, 동네행사가 이루어지는 곳, 마을 마당으로 모임의 장이 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문화예술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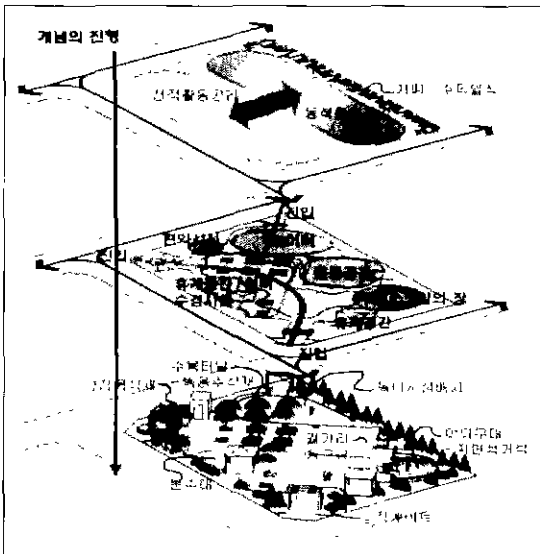


그림 3 구성개념도

### 3. 공간골격의 형성

부지가 전반적으로 평탄함으로 이를 감안하여 입체적 공간구성을 도모하고, 크게 활동적인 공간과 정적인 공간을 구분했다(그림 3 참조).

즉 공원의 정체성과 위요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경계 부위를 의도적으로 성토(mounding)하고 동시에 주변의 경관 불량지를 차폐시키면서 공원을 크게 2대분(大分)하여 공간과 시설을 적절히 배치시켰다.

주변 도로와 접하고 있는 북서/ 북동/ 남서 측에 부지의 진입 공간을 두고, 이를 기점으로 기본축을 전개시켜 3축이 교차되는 지점에 중심광장으로 종결되도록 하여 패턴이 있는 일체적 공간체계를 수립하고자 했다.

중심광장은 녹음수 중심의 정적 휴식광장과 열주조형물, 공개공지(open space)로 구성되는 동적 중심광장으로 크게 이분하고 이를 중심으로 4방향으로 이용공간 및 시설을 적절히 배치시키며 동시에 광장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이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리 활동토록 했다(그림 4 참조).

공원 명칭과 이미지를 재고시키기 위해 바닥포장을 해마라기로 디자인하고 부지의 가운데로 계류를 흘려보내며, 거수목을 식재하여 마을 정자목으로 인식시키는 등 전통마을의 원림(園林)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체적인 마을 공동공간의 이미지를 연출했다.

어린이 놀이 및 경관의 대상인 열주 조형기둥과 계류를 이용한 도섬지와 세발 자전거길 등이 바닥 포장패턴과 어우러져 전반적으로 공원의 도시성과 조형미를 높일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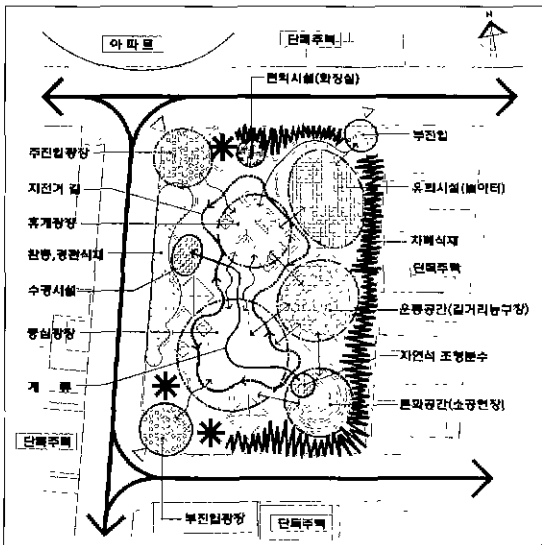


그림 4. 기본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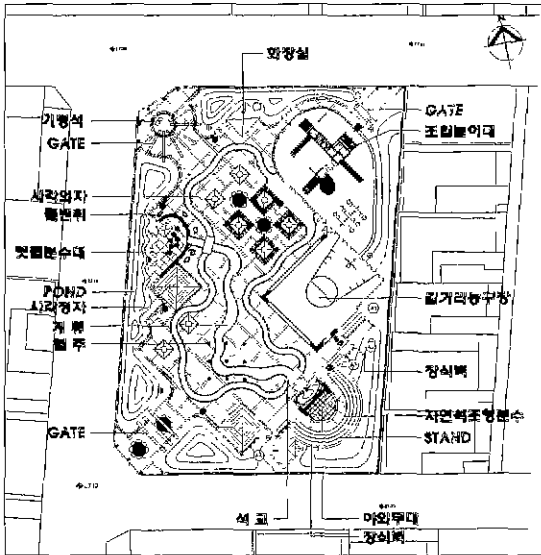


그림 5. 시설의 기본설계도(공간 및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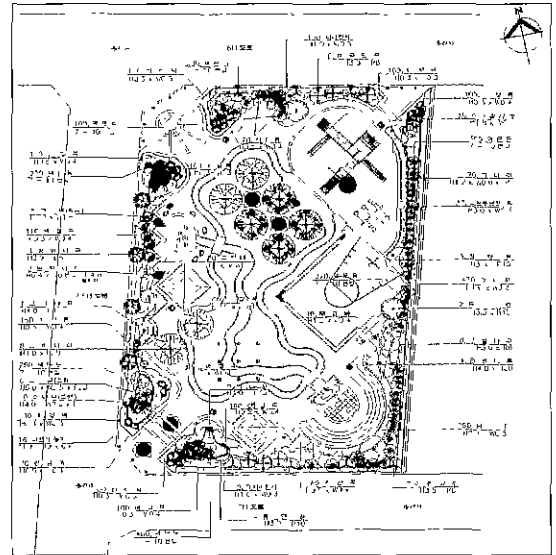


그림 6 기본설계도(식재)



그림 7. 기본설계 조감도



그림 8. 조성 후 전경

#### 4. 공간 및 시설 계획

부지의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활동과 인근 주민들의 옥외활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부차적으로 지역의 공동체적 의식과 문화적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공간과 시설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의 지형을 고려하여 대체로 평레벨(level)로 계획을 하되 부지의 동쪽 외곽으로는 마운딩 처리하여 불량 주택지와 분리를 시켜주었다. 장식 가벽을 설치하여

부지 내에서 일어나는 행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서로 상충된 기능을 완화시켜 주고자 했다. 그리고 유아 및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과 시설로써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유스러운 놀이 행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합 놀이시설, 놀이조형물, 계류형 도설지, 세발 자전거 길 등을 계획했다.



그림 9 중심광장



그림 10. 조합놀이시설



그림 11. 세발자전거 길



그림 12. 휴게 공간 시설



그림 13. 길거리 농구장



그림 14 계류형 도선지

유아 놀이터는 별도로 다소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고 보호자가 지켜볼 수 있도록 하며, 초등학교 상급학년부터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써는 길거리 농구장을 설치했다. 노인 및 청·장년을 위한 공간과 시설로서 소일과 휴식에 이바지할 수 있는 휴식 겸 편의시설에는 정자, 퍼골라, 평상, 벤치, 녹음 그늘공간 등을 계획했다.

지역주민의 동질감과 공동마당의 역할을 수행하며 운동 및 놀이활동을 부분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다목적 중심광장을 두고 오전에는 주민들의 운동공간으로서 매드민턴이나 체조, 낮 시간대에는 유아 및 노년층의 휴식 및 놀이, 늦은 오후엔 길거리 농구장과 연계하여 학생층의 운동을, 저녁에는 가족단위의 산책 답소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했다.

부지의 중앙에 마을 원림기념의 녹지( 숲)를 형성하고 휴식 및 담소 행위를 수용키 위한 편이시설을 제공하고 거수목을 정형 식재하여 공원활동을 수용하고 지표 식재로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소규모 야외무대 및 나무 그늘이 있는 관람석을 설치하여 축제성 문화활동과 자연스럽게 들러서 얘기하는 곳, 동네행사가 이루어지는 곳, 마을 마당으로 모임의 장이 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문화예술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림 15. 소규모 공연장



그림 16. 원림형 녹지

### 5. 이동공간과 포장

협소한 부지면적을 감안하여 이동공간은 대상지 중심부를 광장화하여 전 면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내구성과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계획을 수립했다. 활동 밀집지인 중심광장은 화강석과 점토벽돌 패턴 포장을 도입하여 장소감을 제공하고, 길거리 농구장과 세

발 자전거 길은 세라믹 포장을 이용하여 밝고 다양한 색채로 포장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은 모래를 포설하여 모래 그 자체만으로도 놀이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계류부분의 포장은 중심광장의 포장과 동일하게 하여 겨울철이나 물이 없는 시간대에도 시각적으로 이질감이 없도록 조성했다.



그림 17. 중심광장의 포장



그림 18. 계류부의 포장

### 6. 식재

향토 고유수종을 선정하며 이식이 양호한 수종을 선택했다. 협소한 대상지를 감안하여 중심광장 부분의 식재수목은 정지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느티나무를 열식하여 공원 내 숲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부지의 진입부는 소나무와 거수목의 식재로 입구로서 상징성을 부여하며 동쪽 불량 주택지와 접한 부분은 외벽의 차폐와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성토 후 상록수 위

주로 식재를 했다. 부지 외곽 쪽으로는 녹지의 보호를 위해 헨스를 설치하고, 팥나무나 쥐똥나무로 생울타리를 조성했다.



그림 19. 외곽 완충녹지

어린이 놀이시설은 조합놀이대와 정글짐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놀이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중심광장부분은 계류를 설치하여 친수활동을 유도하고 계류에 대비하여 화강석의 조형열주를 설치하여 기존의 놀이터에서 탈피한 조형미를 추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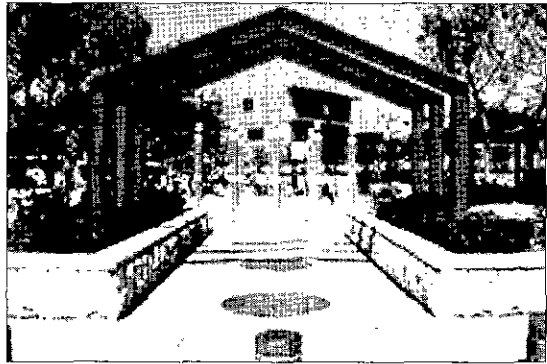


그림 21. 조형아치게이트



그림 20. 경계부 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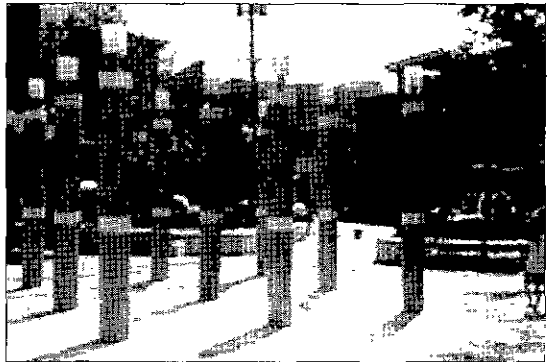


그림 22. 열주 조형기둥

### 7. 조형시설물

소규모의 부지와 조화를 이루며 향토적인 조형미를 갖춘 사모정 형태의 사각 정자를 설치하고, 정자 하부에는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평상을 도입했다. 각 단위 시설의 외부경계는 휴식을 겸할 수 있는 플랜트 박스(plant box)로 처리하여 어린이공원 내부 전체가 휴식공간이 되게 조성하였다.

놀이터 주변의 녹음수 주변에는 목재사각의자를 설치하여 이곳에 앉아서 놀이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각 진입부에는 구조용 H형강으로 조형아치의 게이트를 설치하여 진입감과 공간감을 주도록 하였으며, 차량진입을 통제하기 위한 화강석 블라드를 설치했다.



그림 23 분천지



현대적 감각의 놀이공간으로 하고 공간별 성격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식벽을 설치하되 장식벽의 높이는 1.2m로 했다.

부지 외곽으로는 벤치를 설치하고 분천 주위에 단일 경석을 놓아 벤치 기능과 경관석 기능, 놀이 기능 등을 동시에 유도했다.

#### IV. 결론

도시공원법 상 최소단위의 공원인 어린이공원은 도시 공간에 비교적 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대부분 주거지와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도시 소공원으로 역할이 기대된다. 따라서 본 설계는 어린이공원의 기능확대와 창조적 재정비 측면에서 기본적인 어린이놀이 기능뿐만 아니라 모험과 흥미를 제공하며, 자유로운 놀이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장년층, 노년층의 잠재 공원이용의 수요도 동시에 고려하여 주민 누구에게나 개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이용성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이와 아울러 포켓파크(vest pocket park)와 같은 소공원의 기능과 장점을 수용하고, 대상지가 문화소외 지대가 대부분이므로 썸지공원, 마을마당과 같은 마을 공동 놀이마당의 역할과 한국적 정서의 향수를 공유하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놀이+문화+휴식의 개념을 도

입한 다기능의 복합적 도시 소공원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고자 했다.

본 공원과 같이 어린이공원을 설계하면서 느낀 점은 시급히 도시공원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어린이공원의 명칭을 도시소공원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공원명칭이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의 공간과 시설구성이 한정되고, 이용계층도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단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공원을 도시소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명실상부하게 복합적 기능의 소공원으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도시 소공원은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고밀도 주거지나 도심지에 위치해 있는 소공원은 기존의 단조로운 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구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한 복합적 기능을 갖고 창조적인 공간구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의 정서와 실정에 적합하고, 해당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그들의 공유관념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소공원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과제로 생각된다.

주 1. 편집자주: 이 설계작품은 1999년 7월 3일 (사) 대구 경실련환경개발센터와 대구방송(TBC)이 실시한 도시환경 문화상에서 도시환경문화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원고접수: 2001년 1월 26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1년 2월 5일  
무심사